

내년 '아태 오케스트라 연맹 총회' 광주서 열린다

국내 최초 유치 성공... '문화예술도시' 위상 입증 AI기반 창작·유통·관객전략 등 공연예술 표준 제시

내년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 연맹(Asia-Pacific Region Orchestras-APRO) 총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9일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 연맹(APRO, Asia-Pacific Region Orchestras) 총회' 폐막식에서 2027

APRO 총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APRO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오케스트라·공연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 공연예술 협력 기판(플랫폼)이다. 지난 1997년 창설돼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의 정책 방향과 협력 체계를 이끌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20년 APRO 총회 개최

지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으며 6년만에 일본 가와사키에서 재개된 총회를 통해 확정됐다. 역대 총회 개최지는 도쿄, 상하이, 모스크바, 시드니, 뭄바이,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광주가 최초로 총회를 유치했다. 2027 APRO 총회는 광주예술의전당이 주최·주관한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총회를 통해 오케스

트라의 역할을 '공연단체'에서 '국제적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해 APRO의 변화를 이끌고, 인공지능(AI) 기반 창작·유통·관객 확장 전략을 선보여 아시아 공연예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총회 유치를 광주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공연예술의 융합 방향을 제시하고, 아시아 대표 문화도시로 본격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황인재 문화체육실장은 "2027년 총회에는 올해 불참했던 중국을 비롯해 APRO의 특별회원국인 영국 오케스트라 연맹, 독일 오케스트라 연맹 등의 참가도 예상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아시아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총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통합특별시 누리집 주소 시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특별시 공식 누리집 주소(URL) 선정을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와 도는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온라인을 통해 '누리집 주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과 외부 이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디지털 창구의 이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시된 누리집 주소 후보는 총 7개다. 두 지역명을 모두 반영한 'jeonnamgwangju.go.kr', 'jeonnamgwangju.go.kr'을 비롯해 약칭을 활용한 'jngi.go.kr', 'jn-gi.go.kr', 'jg.go.kr' 등이 포함됐다. 또 통합의 의미를 강조한 'jgunion.go.kr', 도시 이미지를 강조한 'jgcity.go.kr'도 후보로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시된 7개 후보 가운데 선호하는 주소 1개를 선택하면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설문 참여자 중 15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양 시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박광석 시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특별시의 첫 디지털 문명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누리집 주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 서구, '입소문' 난 행복학교 3기 입학식 9일 광주 서구 화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함께서구 행복학교 3기 입학식'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유가 급등 대응... 민생예산 국고 반영 총공세

면세유·비료 지원 확대 건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 준비

전남도가 중동발 유가 상승 여파로 악화된 민생경제 대응을 위해 국고 확보와 추경 집행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에 맞춰 민생안정 시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 확정 즉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부안에는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시설농가) 보조금 지

원, 어업용 면세유 보조, 무기질 비료 가격 지원 등이 포함된 상태. 유류비와 생선비 상승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는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지원이 반영된 것이다.

전남도는 여기에 더해 현장 제감도가 높은 추가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50% 지원 대상을 시설농가에서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임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핵심이다. 연안여객선 유류비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건의

목록에 올랐다. 도는 이들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 확정 이후를 대비한 집행 준비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민생 안정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군과 협력해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로 직접적인 부담을 겪는 도민 지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 전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 편성, 지급 방식, 인력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22개 시군과 협력해 지급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원규 기자 gnnews1@

광주, 공공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돌입 야간조명 단축·차량 부제 등...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 가동

광주시가 중동 전염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공부문 야간조명 단축·승강기 제한 운영·차량 부제 등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수립. 시청사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시는 먼저 도시의 미관을 담당하던 청사 야간 경관조명 운영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에너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시청사 1층 공용공간 조명을 주간에 약 30% 소등 운영하고, 건물 내 난방시설을 즉시 중단하는 등 청사 내부 공간에 대한 고강도 절감 조치를 병행한다.

또 주차장과 지하 복도의 조명 밀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이후인 밤 9시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전등을 일괄 소등한다. 승강기 운영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에는 전체 승강기 중 30% 이상의 운영을 중단해 불필요한 동력 소모를 억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설비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에도 나서고 있다.

노후화된 열교환기를 교체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400kWh를 운영해 심야시간대 저렴한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전력 사용을 분산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설비 240kW를 운영해 청사 내 자체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시, 청사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개선

광주시는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이동 설치하고 안내 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했다.

광주시는 기존 운영하던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한 후 자료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권 친화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설 개선을 통해서도 충전시설 위치를 시민고객및이밖으로 이동, 이용방법·고장 시 연락처 안내문 벽면 부착, 주 출입문 외부 안내 표식 설치, 기존 위치에 안내문 부착 등을 시행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